

제 59 호

예수 세례 기념 축일

1974. 1. 13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합승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강론]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오십니까?

안복진 신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가 3:22)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제실때,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리시며 하늘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기념 축일을 지내는 우리는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당신을 두려워 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사실”(사도 행전 10:34-35)입니다.

심각한 유류난으로 고통을 받은 우리네들의 소망(?)이 신문 만화에 여러번 공통적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유전이 샘솟듯이 터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니다. 꿈에 헛소리를 하듯이, 오죽하면 그런 만화가 신문마다 나왔는가 해서 웃음이 절로 나올 법한 그림이었습니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도 바오로께서 지적하신 점을 외면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연의 파괴때문에 인류의 자멸을 예언한 미래학자의 의견이라든가, 정의가 짓밟히고 불신이 우리의 숨통을 누르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의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표양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씀처럼 “제(요한)가 선생님(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니다.

역사가 가르치듯이 많은 지도자들은 법을 조율해서 살았습니니다. 오히려 출신해서 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그들이었지만 법을 악용했기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모범이 되시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니다. 이는 진실로 의미가 깊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쳤듯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란 바로 <하느님을 두려워 하고 올바르게 사는> 그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며, 예수님 처럼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중앙성당 주임신부)

이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입당송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하는 성부의 소리가 들려왔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 42:1-4, 6-7)
보라, 내가 좋아하는 종이로다.

□찬례송 ◎야훼님이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이야 야훼께 바쳐라. 주님께 그 이름의 영광 드리며, 거룩한 차림하고 주께 조배드려라. ◎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성서 P.290

하느님이 성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하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3:15-16, 21-22, 성서 P.130)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제 하늘이 열렸다.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옛그제 졸업한 당신의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2.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여, 특히 가난에 짓눌려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

3. 진리의 성신이어, 당신 교회를 맑게 비추시어, 당신의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十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어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실천케 하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보라, 이분이야말로 요한이 예언한 그분이니, 이분을 요한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도다.

(4) 폐회식

숲정이 산책





서다, 꿇다, 앉다.

박진량 신부

미사는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예배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적어도 매 주일 한번씩 이 미사에 참여한다. 각양각색의 하느님의 백성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데 처음으로 성당에 나온 사람은 미사예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나머지 소외감을 느끼며 불평을 말하는 수가 많다. 「천주교는 역시 엄숙한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신자가 설명이라도 해주었으면 좀 나오려만, 뜻대로 안되는 것이 또한 신자들의 고충이고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윗 어른을 만났을 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이 결코 형식만은 아니듯이 우리가 미사 때에 하는 모든 행동과 자세에는 그 뜻이 있다.

일어서는 것—이것은 「존경의 표시」이다.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왔을 때 일어서서 맞이 하듯이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든 회중은 일어서는 것이다. 복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서있는 것은 헤브레아인(예수님이 태어난 민족)들이 기도할 때 취하는 정상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기도할 때 취하는 독특한 자세가 되었다. 그래서 미사 때에 주례자가 공적인 기도를 바칠 때는 모든 회중이 다 일어서서 바친다. 교부들은 서있는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세례 받은 하느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유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복된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이다.」

무릎꿇는 것—이 자세는 「통회와 보속」을 뜻한다. 또 개인적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이다. 그러나 비교적 근대에 이르면서 라틴 예전에서는 성체께 대한 극도의 존경과 흠숭을 표시하는 데에 이 자세를 도입했다. 그래서 오늘 날 미사 중에도 성찬기도를 바칠 때는 모든 회중이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다.

앉는 것—이것은 「가르치는 스승의 자세」이다. 주교나 교황은 자기 자기 교구의 교좌(Cathedra)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앉는 자세는 또한 「경청하는 자세」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다. (누가 10 : 39) (가톨릭 센터 관장)



교회 일치 운동의 역사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 : 21)

1. 일치 운동 전사(前史)

325년(니케아 공의회)…아리우스파 (聖子の 神性부인) 배격
1054년…서방교회(로마)가 미카엘 체를라리우스 파문 동방교회도 서방교회 파문으로 교회분열.
1215년(4. 라테란 공의회)…동방교회 초청했으나 불참
1438-43년(플로렌스 공의회)…일부동방교회, 로마와 재일치.

1517년…말틴 루터, 95개조 선언 발표(1520년 파문됨)
1531년…영국왕 헨리 8세, 영국교회의 독립선언.
1536년…장 칼빈이 장로교 시작.
1589년…러시아 정교회와 동방 교회에서 독립.
16세기…성공회에서 분리된 조합(組合) 교회 발족
17세기…침례교 발족
18세기…감리교 발족
19세기…구세군 발족
19세기 후반기…개신교 각파의 자체 연합 운동
각종 선교단체 연합회 발족

YMCA(1878), YWCA(1898), 세계 기독교생 연맹(1895) 등

2. 본격적 일치 운동의 발전

1948년…세계 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창립, 150교회가 가담.

1949년…일정한 조건하에 가톨릭 신자의 일치운동 참여 허용.

1960년…일치운동 사무국이 로마에 설치됨.

1961년…WCC 제3차 총회에 가톨릭 공식 옵서버 참석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

1964년…교회현장,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에 대한 교령 발표, 일치운동을 적극 추진.

1965년…일치 사무국 위원장 WCC 본부를 공식 방문. 로마와 WCC간의 공동 연구 위원회 발족. (2월18일)

로마와 이스탄불에서 동서 교회가 서로 선언한 파문을 철회하는 예식을 동시 거행(12월7일)

1969년…교황이 WCC본부방문.

1971년…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신자에게 영성체 허락

1972년…일치운동 사무국, 타 교파인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훈령 발표.

※: WCC—갈려나간 형제들의 모임.

일치운동 사무국—가톨릭의 기구.

—사무(司牧)지 24호(72년11월)에서 발췌.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결 전문)

대동지 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⑤ 5986
입정원 (도민고)

선물용 케익과 빵, 파자, 참쌀떡 준비!

프랑스 제과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찾집 ⑤5013
김원준(야고버)

※ 최신행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⑥ 6794
이현주(테레사) 올림

양 지 쪽



서리가 내리면

—천이의 졸업을 축하하며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씨의 <국화 옆에서>
 하얗게 서리가 내린 시골 들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갈밭 산등성이 풀위에 내
 린 서리도 좋고, 초가지붕 위에 덮인 그것도 좋다. 하얗다 못해 반짝거리는 서리를
 보며 너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통으로 어른들은 서리를 좋게 보아 주지를 않는다. 서릿발 같은 호령이라는 말을
 너도 들었을 게다. 그리고 배가 아직한 그 말 뜻을 잘 모르지도 모르는, 부녀자가 한
 (恨)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부터가 그렇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양자의 정치가 가혹하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春秋感精符)고. 하기가 다된 농사
 에 서리가 내려서 좋을 일은 없을 테니까 서리를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리라.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온 네 기분이 반드시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예비교사
 부터 포기해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던 너였지만, 어디 그리 쉽거나? 고교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너의 누나 심경도 그러했을 것이다.
 초저녁부터 서리맞았다고 느끼는 지금 네 심정으로는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테지. 하지만 네 친구 혼이를 보아라. 그렇게 환경이 좋은 애였지만 지금의 처지는
 어떨드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더라. 너의 가난 한가지가 서러
 운 것이지, 너에게는 성실과 젊음과 건강이 있지 않느냐?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실
 망하지 않을 때, 너에게는 분명히 밝은 내일이 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노래를 불렀다. 오늘, 나
 는 너에게 조금은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옛그제 늦게 집엘 들어가면서 들은 이
 야기가 문득 생각나서였다.
 “엄마, 서리가 많이 내렸네요.”
 “그래? 내일은 따뜻하겠구나.”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은 유난히도 따뜻했던 것을 너도 잘 알고 있겠기에, 이 글로
 네 졸업을 축하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피를 토하며 운다는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도
 울어였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마치 새끼를 잃은 호랑이처럼 그렇게도 울었다더라.
 (P)

요심이 (26) 金稱干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②3498)

- 16 (수) 오후 2시.....여성교실 (뜨게질 강습)
준비: 폐품실 3 색이상, 가는철사 60mm, 후르팅 테이프
- 17 (목) 7시반.....“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18 (금) 8시.....레크레이션 (주최:가톨릭 센터와 J.O.C.)
-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14(월) 독서 (히브리 1: 1- 6, 성서 P.496)
복음 (마르코 1: 14-20, 성서 P. 76)
- 15(화) 독서 (히브리 2: 5-12, 성서 P.497)
복음 (마르코 1: 21-28, 성서 P. 76)
- 16(수) 독서 (히브리 2: 14-18, 성서 P.498)
복음 (마르코 1: 29-39, 성서 P. 76)
- 17(목) 독서 (에베소 6: 10-13, 18 성서 P.446)
복음 (마태오 19: 16-21, 성서 P. 45)
- 18(금) 독서 (히브리 4: 1-5: 11, 성서 P.500)
복음 (마르코 2: 1-12, 성서 P. 78)
- 19(토) 독서 (히브리 4: 12-16, 성서 P.501)
복음 (마르코 2: 13-17, 성서 P. 78)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임한진 애견)

문의처: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팔)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T V
남 장 G
석유스토브

- 전주극장 동편 일구
전화 ② 8121
여 요 셀(윤창)

제4지구 6개 분당 소식

[소]

[식]

- 1. 각 셀 의장 및 지도자 모임 (오늘 오후 2시, 해성 종교감철)
 많이 참석하시어 지난번에 다진 결의를 새롭게 하고 공부해 봅시다. 지난 주 불참하신 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전주 교구 중·고등 학생회 지도신부 문정현 드림.
- 2. 일치주간 (1월 18일~25일)
 갈려나간 형제들과 일치를 위한 공동 기도회, 좌담회, 찬목회 등의 행사로 그분들과의 폭을 좁혀 봅시다.
 ※ 일치에 대한 말씀의 광장 (21일<월> 밤 7시반, 가톨릭 센터)
 주제 : 교회일치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연사 : 유 병곤 목사 (신흥학교 교목), 범 석규 신부 (전동 주임신부)
- 3. 꾸르실로 (2월8일~6일, 가톨릭 센터, 회비 3,500원)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2. 반상회 개최
 18일 (금) ...진북 2구 1, 2, 6반
 19일 (토) ...진북 2구 3, 7반
- 3. 일반교우 피정 (14~17일, 1일 간씩)
 많은 교우들의 참가를 바라며, 구역회장님들의 접수에 협조 요망합니다.
- 4. 신용조합 소식
 ① 통장 제출 요망 (이익 배당)
 ② 조합에 통장 보관하신 분은 찾아가세요.
 □지난 주일 봉헌금 40,26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제 양성비는 제달에 꼭꼭 넣시다.
- 2. 교무금 납부하여 분당살림 도움시다.
- 3. 첫 고해할 어린이 지도
 부모님들은 적극 협조하시어 분당 교리반에 보내주세요.
- 4. 조 종열 (미카엘)씨 서울 대학 병원에 입원중.
 중환으로 입원 중인 조종열 교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 회복하시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5. 북자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 주 성미 3말 2되 (누계 239말)
 지난 주일 봉헌금 13,411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 1. 분당 신축 기금 납부에 협조합니다.
 분당 신축 기공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합니다.
 □지난 주 신축 성미 5말 5되 (누계 120말)
 지난 주일 봉헌금 16,9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행려 병원 (갱생원) 방문 (1월8일)
 사도회 임원들은 갱생원을 방문, 70명 수용자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잊지 않습니다.
- 2. 사도회 임원, 각 구역 공소회장, 반장, 레지오 단원 피정 (2월2~3일)
 해당되시는 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 3. 구정 (23일) 합동 위령미사 있음.
- 4. 신용조합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지난 연말까지 1과 (500원)미만인 조합원 및 6개월 이상 출자 아니한 조합원 정기총회시 제명 결의하겠습니다.
 ☆ 축 결혼 ☆ (14일 11시)
 신랑 이 중화 군과 신부 손 중애양
 □지난 주일 봉헌금 11,29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 1. 신용조합 정기 총회 (16일 (수) 오후 7시)
 ① 73년 결산보고, 74년 수치 예산 승인
 ② 이익배당 ③ 임원보선
 ※ 참석 조합원에게 행운권 발급, 빠짐없는 참석 요망
- 2. 미사시간 안내
 평일 - 월·수·금 (오전 6시반)
 화·목·토 (오후 7시반)
 주일 - 오전 10시, 오후 4시, 7시반
- 3. 애령회 정기총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4. 구정 (23일) 합동 위령미사
 다음 주일까지 봉헌 예물 접수 바람.
 ☆ 축 결혼 ☆ (14일 11시)
 신랑 최 규선군 신부 유 희순양
 □지난 주일 봉헌금 6,2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부활절 영세자 선정식 (오늘 저녁 미사후)
-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 저녁미사후)
- 3. 신용조합 월례회 (14일<월> 오후 8시)
- 4. 분당 유지 현황 보고 (73년 12월말 현재)
 총수입 1,485,333원 (교무금 563,050원, 거년도 교무금 405,950원, 주일금 515,814원)
 총지출 1,386,071원, 잔액 99,262원
- 5. 애령회 소식
 총수입 (67,576) - 총지출 (30,044) = 잔액 (37,532원)
 <12월분> 수입 (5,955원) - 지출 (5,000원 - 교우 2, 대세자 3)
 오늘은 둘째 주일로 애령회 현금있음. 적극협조 바람
- 6.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7.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1월20일~2월25일)
- 8. 학생회 삼성 보육원 방문
 복권 상품 찾아가세요. (68, 277, 147번)
 협조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교무금 수입 현황 2,787,800원 (506세대)
 부녀부 성미 2과 (현금 누계 56,735원)
 지난 주일 봉헌금 36,290원, 구유 현금 3,181원, 감사합니다.

편집실 소식

- 1. <신앙인의 상식>난
 교우 여러분의 갈망에 의하여 교우들이 알아야 할 교리나 교회 상식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2면에 박진량 신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박신부님께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화 3498)
- 2. 원고 모집
 원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 3. 퀴즈 상품
 아직 안 찾아 가신 분은 14일 (월) 오후 2~3시에 해성학교에 나오세요.